

## 항공방위산업발전 세미나 개최

21세기를 향한 항공산업 및 전투기 개발 방향 제시



### 한국

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공동 주최한 『국내 항공방위산업 발전』 세미나가 지난 5월 27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 산업발전을 주도해 나갈 미래 전략산업인 항공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내 항공방위산업 관련 산·학·연·군·관의 교류를 증진하는 한편, 우리 나라 항공방위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효율적인 발전방향 등 첨단 항공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심이택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 사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항공방위산업 여건상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첨단 기술력 확보가 보다 시급한 당면 과제이며, 또한 기존 인력의 유지를 위한 후속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다행스럽게도 차기 전투기 사업의 대상기종이 선정되어 앞으로 우리 공군은 적정 수준의 차기 항공 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방위산업계는 첨단 기술력 확보는 물론 절충교역을 활용한 사업물량 창출로 침체된 방산업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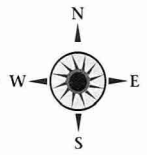
길형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항공기 부품소재분야에서도 엔진, 소재, 보기, 유압, 항전장비 등 분야별 기술기반이 크게 성장하여 우리 나라도 첨단 항공기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해외에 판매하는 항공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시도하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내 항공선진국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상 세종대 교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 비전」의 주제 발표에서 2005년까지 항공기 설계,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항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항공기 수출과 민수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항공산업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진수 한양대 교수는 「국내 항공산업 기술수준 및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항공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기술파급 효과가 큰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며 국가의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FX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첨단 항공기 설계, 개발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학 공군 항공사업단장은 「21세기 항공우주군을 향한 공군력 발전방향」의 주제발표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보잉사의 F-15K 전투기는 실전능력이 입증된 최고의 전투기임을 강조했다.

이경태 세종대 교수는 「국내 방위산업 현황 및 한국형 전투기 개발방향」의 주제발표에서 군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서 민·군수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KMH 사업 등 후속 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KDX-II, 충무공 이순신함 진수

## 대함·대공·대잠 등 입체적 현대전 수행 능력 갖춰



**KDX-II** 1번함인 충무공 이순신함 진수식이 5월 22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장정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및 조선소 관계관, 지역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국내 최초 4,000톤급 구축함 시대를 예고한 충무공 이순신함은 약 1년간의 운용시험을 거친 뒤 2003년 말경 해군에서 인도, 전력화할 예정이다.

90년대말에 건조된 3,000톤급 구축함은 그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책임해역에 대한 작전수행능력을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원해작전 수행에는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KDX-II 4,000톤급 충무공 이순신함 진수로 우리 해군은 3,000톤급 구축함과 함께 전투함 분야

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함·대공·대잠작전 등 입체적인 현대전 수행능력을 갖추므로써 중거리 대공방어능력 보유와 함께 원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그 동안 우리 국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해운력에 걸맞고 미래의 해양안보환경에 따른 국익 및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해군력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현 보유전력의 전투효율성을 보장하고 미래 핵심전력을 확보하여 자주적 방위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력건설을 추진해왔다. 이에 해군은 1980년대 초부터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한국형 구축함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단계별로 KDX-I, KDX-II, 그리고 KDX-III 함정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번에 진수한 충무공 이순신함은 KDX-II 구축함의 첫번째 함이 된다.

해군은 장거리 대공방어능력을 보유하고 다수의 적 항공기와 유도탄을 동시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공격능력을 갖춘 첨단화·과학화된 KDX-III 구축함을 수년내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해상에서 국익과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첨단 핵심전력으로, 작지만 질적으로 강한 해군을 육성하고자 하는 해군의 전력증강 방향에 기초하고 있다.

### ■ 충무공 이순신함 제원

구 분	내 용
크 기	전장 : 150M, 전폭 : 17M, 깊이 : 9.5M
톤 수	4,200 ± 420톤 (경하톤수)
추진기관	가스터빈 2대, 디젤엔진 2대
속 력	최대 30노트
항속거리	4,000NM (18노트)
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함미사일 : 하퐁</li> <li>- 대공미사일 : SM-II</li> </ul> </li> <li>○ 함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치</li> <li>- 30MM CIWS</li> </ul> </li> <li>○ 헬기 : LYNX</li> </ul>

### ■ KDX-I, II, III 차이점

구 분	운 용 개 념 차 이 점
KDX-I	3,000t급 전투전대 주력전투함으로서 자체 대공방어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함방어용 단거리 함대공 유도탄 SEA SPARROW를 탑재
KDX-II	4,000t급 전투전대 지휘통제함으로서 호송전단 및 전투전대 대공엄호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구역방어용 중거리 함대공 유도탄 SM-II 탑재
KDX-III	7,000t급 기동전투단 지휘통제함으로서 장거리 대함·대공·대잠·대지작전 및 유도탄 방어를 위한 다중, 다량의 무장 및 탐지장비 탑재

# 2003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 차세대 첨단전력 개발능력 확보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방부** 는 2003년도 국방예산 요구서를 2002년 대비 12.7% 증가한 18조 4,444억원으로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다. 이중 전력투자비는 14.9% 증액된 6조 2,903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11.6% 증액된 12조 1,54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력투자비 소요를 중점 반영하였으며, 경상운영비도 장병 사기복지 증진 등 필수소요를 반영함으로써 전력투자비 배분비율을 33.5%에서 34.1%로 상향 조정하고, GDP에 대한 국방비 비율도 현재 2.8%에서 내년도 인건비 처우개선 소요 포함시 3.0% 수준으로 상향 배분하였다.

### ■ 편성중점 및 주요사업

전력투자비는 현존전력의 완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발전시키며 차세대 첨단전력 개발능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경상운영비는 장병 사기 복지 증진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미래 전장환경 대비 국방정보화 과학화를 적극 추진하며, 탄약 연료 등 필수소요를 반영, 전투임무위주의 교육 훈련을 보장하고 환경보전시설 확보와 군 사용 사유지 매입 등 민원 조기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사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 \*전력투자비 분야

전력투자비 중 계속사업은 5조 9,819억원(95.1%), 신규 착수사업은 24개사업 3,084억원(4.9%)이다.

계속사업을 전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4I/전자전 전력은 전술통신체계, 다중채널 VHF장비, 무인정찰기, 장거리 레이더 등 27개사업 3,271억원을 반영하였다.

기동/타격전력은 K-1A1전차, K-9 155밀리 자주포, 대구경다련장 등 17개사업 6,119억원을 반영하였다.

해상/상륙전력은 한국형구축함(KDX-II), 7000톤급 구축함(KDX-III), 214급 잠수함 등 26개사업 1조 330억원을 반영하였다.

공중/방공전력은 F-15K전투기, KF-16 추가생산, 단거리대공유도무기 등 19개사업 1조 2,672억원을 반영하였다.

지원전력은 편제장비보강, 장비유지, 방위비분담금, 불곰 2차 사업 등 73개사업 2조 1,755억원을 반영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은 핵심 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술 부품개발에 5,672억원을 반영하였다.

'03년도에 새롭게 착수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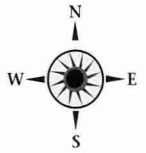
C4I/전자전 전력은 함정 기지용 전자전장비, 신호정보

2003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규모

(억원)

구 분	'02 예산		'03 요구		증 감		
	점유율		점유율			%	
전력 투자비	5조 4,756	33.5	6조 2,903	34.1	8,147	14.9	
경상운영비	인 건 비	7조 104	42.8	7조 4,707	40.5	4,603	6.6
	사 업 비	3조 8,780	23.7	4조 6,834	25.4	8,054	20.8
합 계	16조 3,640	100.0	18조 4,444	100.0	2조 804	12.7	

\*GDP 대비 점유율 : 2.8 → 2.9% (미요구 '03 처우개선 포함시 3.0% 수준임)



수집체계, 통신중계용 전술차량 등 8개사업 328억원을 반영하였다.

기동/타격전력은 11기계화보병사단개편, 1군지휘소신축, 헬기용 전방관측적외선장비 등 3개사업 253억원을 반영하였다.

해상/상륙전력은 차기고속정, 공기부양정 시설 등 2개 사업 24억원을 반영하였다.

공중/방공전력은 국산항공기인 T-50양산 사업과, F-5E/F 수명연장, 남부전투비행사령부, 휴대용대공유도탄 등 4개사업 1,493억원을 반영하였다.

지원전력은 지휘헬기, 화방사창설 등 4개사업 395억원을 반영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은 MCRC 노후교체, K-9용 탄약운반장갑차개발 등 3개사업 591억원을 반영하였다.

## 제8회 항공기 개발 심포지엄 열려

### 체계종합, 시험 평가 등 6개 분야 86편의 논문 발표



**지난** 5월 3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가 후원하는 제8회 항공기 개발기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항공기 개발기술의 저변확대 및 기반구축과 산·학·연·군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격년제로 열리는 본 심포지엄은 항공기술 전문가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계종합, 시험평가 등 6개분야에 대해 86편의 국내 최신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영국 크랜필드대 명예교수인 Howe 교수의 무인기와 관련한 초청강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박용득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환영사에서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러 요소 중에서 첨단 항공무기체계

를 통한 제공권 장악은 전장의 주도권 확보 및 승리의 핵심요소이며, 이를 위해 국내 항공 개발기술의 체계적인 자립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안동만 3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차원의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되며, 21세기 항공무기 개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홍순길 한국항공대 총장은 축사에서 "민·군·산·학·연 협동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이기동 공군 전투발전단

장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과 항공우주력이 전장을 주도하는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본 심포지엄이 산·학·연·군간의 기술정보 교류 및 협조체제 유지에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축사를 하였다.

또한 신보현 국방부 연구개발관은 「F-X사업의 의의와 항공기술 발전」이라는 특별강연에서 차기전투기(F-X) 사업은 우리 나라의 전략무기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 및 높은 비율의 절충교역 목표달성으로 큰 의미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항공전자/무장제어 국산화 장비, KT-1 20% 풍동모델 등 항공관련 국산화 개발품 및 연구장비가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